

지 상 범 석

동전하나 보시가 공덕

“나의 주인을 찾는 것 외에 그 무엇도 나의 것이 아님을 알려는 것이 수행입니다”

침은 불교가 아니면 생각조차 못할 일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훌륭하고 무서운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이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는다면 살아야 할 죄를 지을 수가 없겠지요. 죄를 짓기는커녕 죄를 생각지도 못할 것입니다. 인연과 연기법을 믿는 불자들이 초한 삶을 살아가는 이치가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삼독심이 아무리 발광을 하고 기승을 부려도 능히 제압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는 이유 또한 이 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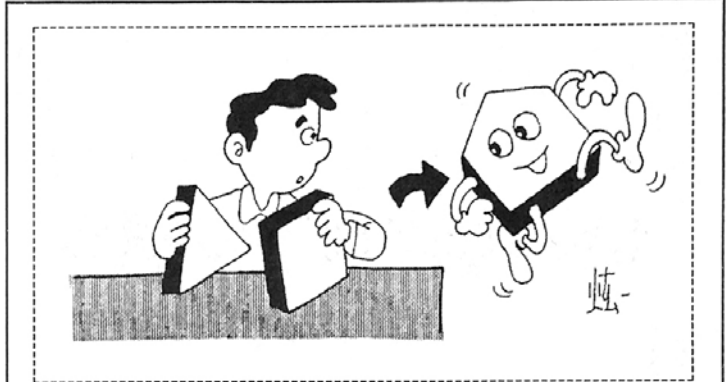
내 마음에서 한번의 죄를 일으키면 하나의 지옥을 지은 것이니 그 업보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내 마음에서 한번의 청정심을 냈다면 하나의 극락국을 이룬 것이니 그 공덕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생에서 좋은 소식, 진리의 법문을 많이 들었으니 그냥 듣는 것에서 멈춰 버린 사람들은 귀만 모여 무엇을 들으려 허둥대는 것으로 간다고 합니다. 듣는 것은 들었는데 그 들은 바를 실행으로 옮기지 못했으니 무엇이 쓸 것입니까. 듣는 순간 마음의 문도 활짝 열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며 진리의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이 질 저 양자로 큰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며 열심히 찾아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한 일입니다. 우매한 중생심에 진리의 법도 하나 밝혀 보고자 하는 그 열원이 가득하기 그지 없으니 법문 듣는 즐거움만 탐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귀가 잠시 즐거웠을 뿐 마음자리를 환히 열지는 못한

안락을 추구하는 마음 역시 탐심입니다. 나를 완벽하게 구축시키는 일에 마음을 쓰도록 합니다. 내가 바로 서지 않았는데 세상이 어떻게 바로 보이겠습니까. 나라에서도 역사를 바로 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처님법대로 말씀드리면 미래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미래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은 현재의 역사를 바로 지어내는 일이지요. 역사를 운운할 자리가 아니라 이만 즐기도록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눈을 맑히고 나의 입을 깨끗이 하고 나의 귀와 코와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하지 않으면 그곳을 통해 들어오는 일체 만물이 흐트러지고 뒤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는 순간부터 해탈의 길은 뒤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완전한 인간으로, 법계에 충만한 진리의 전파를 휘감은 범신으로 만들어 가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처는 깨달은 중생이고 중생은 못깨달은 부처다”라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말이야 하기가 쉬워서 하는 것이겠지만 그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곰곰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몇천겁의 생을 거둬서 부처를 이루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중생심을 버리고 보살심으로 살겠다는 서원을 백번 천번 외친들 무슨 공덕이 있겠습니까. 오늘 돌아가는 길에 만나는 굶주린 이웃을 위해 동전하나 보시하는 행동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삼독심에 이끌려 청정심은 잔뜩 먹구름으로 가리워졌지만 그 먹구름은 영원한 먹구름일 수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바람은 자비심이요 보살심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온 기풍이 생겨난 중생 모두가 한 가족이니 다투고 탐내고 열정을 잃어 버립니다. 서로를 생각해 주고 아껴주며 이 세상이 극락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삼독심 보다 청정심을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부처님 법에 귀의해 그 법을 실천하려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을 때 이미 이 세상



심경은 공을 구체적으로 품어서 살아가기를 ‘...불생불멸 불구부정...’이라고 한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같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생기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다는 뜻의 불생불멸이야말로 물질세계에 관련한 핵심을 찌른 말이다. 고전물리학이건 현대물리학이건 가릴 것없이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 보존의 법칙이다. 이 보존의 법칙이 말하는 바가 바로 에너지, 전기량(電氣量) 등 기본적인 물리량은 결코 없어지지도 않고 생겨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의 예로 질량-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설명하겠다.

물체가 움직이면 거기에 반드시 운동에너지가 따른다. 또한 지구상의 물체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있으면 거기에 위치에너지가 따른다. 높은 곳에 있는 물체를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면 위치

하는 것이다. 나무를 태워 재가 되었다 하더라도 무엇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수소가 산소와 결합하면 다만 물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수소가 산소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물이 생겨난 것도 아니다. 겉으로 보기에 수소가 없어지고 산소가 없어졌으며 물이 생겨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없어진 것이 없다. 타기전에는 산소분자와 수소분자가 서로 따로 따로 놓였던 것이며 타고난 후에는 수소분자와 산소분자가 서로 결합한 것 뿐이다. 산소-수소가 떨어져 있지 않고 서로 결합한 것을 사람이 물이라고 부를 뿐이다. 비유를 들자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과 같다. 결혼전 한남자와 한여자가 있었는데 결혼하여 부부가 되면 남자와 여자가 없어지고 한 가정이 생겼다고 말하는 것과 꼭 같다. 모든 변화가 다 이런 식이다.

불생불멸과 물리학

김성구

반야심경과 물리학 13

심경의 불생불멸 ‘보존의 법칙’과 같아

질량-에너지 변환 기본물리량 변함없어

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에너지의 모양이 바뀔 뿐 에너지의 양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높은 곳에서 떨어진 물이 발전기를 돌리던 전기에너지로 변하고 이 전기에너지로부터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빛 에너지나 열 에너지 또는 운동에너지를 끌어 쓰는데 어떤 형태의 에너지로 쓰던 에너지의 양에는 변함이 없다. 에너지는 또한 질량으로 변하기도 하고 질량이 에너지로 변하기도 한다.

질량과 에너지의 상호변환은 반야심경이 말하는 불생불멸을 물질세계에서 이해하는데 더 없이 좋은 예이다. 자연계에는 어딘가에서 갑자기 질량이 생겨나기도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는데 질량-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어 없어진 것도 없고 생겨난 것도 없다고 말해주기 때문이다. 어딘가에서 불꽃 질량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질량이 없는데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 잠재해 있던 에너지가 질량의 모습으로 바뀌었음을 뜻한다. 질량이 감소한 경우에도 질량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어떤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었음을 뜻한다. 자연현상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는 것은 결국 에너지가 이 모습에서 저 모습으로 바뀐 것을 뜻

실행없이 진리 말하고 듣기만 탐하면 업연늘어 “지금 살아가는 과정 후세를 조각하고 다듬는 일”

렇게 지옥과 극락을 짓고 허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행위는 업이 되고 후세의 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생에서 말하기 좋아하고 진리를 입에 담기를 즐기되 실행이 없는 사람은 죽어서 입만 모여 외글거리는 곳으로 간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저 수박 겉핥기 할아 먹듯 몇줄 공부하고 마치 큰 도를 이룬양 떠돌고 다니며 ‘이것이 최상의 진리다’라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 되겠습니다. 수행은 승승을 구별하고 해야 할 것이지만 그 무게를 가벼히 여기고 함부로 ‘뉘었노라’ 하는 것은 안되는 겁니다. 진정 깨달음을 이룬자는 입을 다무는 법입니다. 옛 선사님들도 깨달음의 소식을 듣는 순간 그 법을 몇줄의 오도승으로 간추려 터트리고는 입을 다물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보일의 시간을 즐기고 깨달음이 익고 익었을 때 비로서 제자들을 모아 진리의 소식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쉽게 오르고 너무 쉽게 도를 넘은듯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실행은 없고 말만 있는 진리였으니 그 파보를 ‘입의 풍산’에서 받는 것이지요.

것이 업연만 늘려 놓은 셈입니다. 진리의 법문을 듣고 그 가르침에 몸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몸종아리가 반뇌의 주머니를 면해서 청정법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근이 느끼는 모든 것은 마음자리를 열어 젖히고 청정법신을 이루는 데로 모아져야 합니다. 그를 위해 삼독심을 물리치는 수행력이 필요한 것이고 마땅히 진리를 실천하는 행위를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완전한 것은 오직 깨달음을 얻은 자만의 것입니다. 부처의 자리에 든 사람 이외에는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의 오감이 느끼는 것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법계의 중생은 모두가 여여히 구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의 눈이 맑지 못하여 그 구족됨을 알지 못합니다. 불완전 투성이입니다. 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부터 완전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의 구족함이 덜된 줄은 모르고 완전한 것 같았음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사더라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탐심을 내지 말라는 얘기를 했는데

“내 이웃은 수행의 도반들이고 내 나라는 커다란 절입니다 게으름으로 어리석음 짓지 말고 수행자로서 자리를 지킵시다”

는 왜 완전한 것을 구하려 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불완전한 탓이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임을 알면서 그걸 인정해 버리고 거기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우리는 중생임을 알면서 중생의 탈을 벗어 던지고 대해탈의 초사위를 놓아 버리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중생으로 머물러 있으며 중생고를 받아가며 중생다운 삶을 이어갈 뿐입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문제의식이 필요합니다. ‘왜 이리인가’를 묻고 되묻는 진지한 문제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문제를 제기하

살아 움직이던 생물체가 죽어서 그 몸이 썩어 없어진 경우에도 원자(原子)의 세계에서 보면 변한 것이 없다. 단지 원자들 상호간의 결합상태가 바뀐 것일 뿐이다. 물질이 생겨났다 썩어 없어지는 것은 사람이 모였다 흩어지는 것과 꼭 같다. 어떤 모임이 있어 사람이 100명쯤 모였더라면 100이라는 숫자의 사람 하나하나가 어딘가에서 없어지고 100명이 모인 어떤 모임이 생겨난 것이다. 이 모임을 사람들이 물질이 생겨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모임이 해체되면 물질이 없어진 것이지만 모임을 구성했던 100이라는 숫자의 사람이 어디 다른 곳에 갔을 뿐 사람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물질이 생겼나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물질세계의 윤회를 뜻할뿐이다. 이렇게 모였다 흩어지고 저렇게 모였다 다시 흩어지고 새롭게 모임 뿐 무엇이 없어진 것도 없고 생겨난 것도 없다는 것이 바로 물리학에서 말하는 보존의 법칙이다. 결국 보존의 법칙은 불생불멸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불생불멸! 그것은 물리학의 기본법칙이다.

(이화여대 교수·물리학과)

집집마다 「불자의 집」, 차량마다 「우리는 불자」 명판을 붙입니다

◆7도 칼라로 제작 하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2천만 불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2천만의 불자 모두가 스스로 불자임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떳떳한 불자, 긍지있는 불자가 됩시다!

이제 우리는 불자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자부심은 극락정토를 앞당기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본 감로기획에서는 「불자의 집」 명판 붙이기 운동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화하기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한 제품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앞장 서겠다는 서원의 실현이기도 한 이 운동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크기 6cm x 7.5cm



■크기 3.5cm x 10.5cm

- 특 징**
1. 원색칼라로 제작하였습니다.
 2. 표면에 에폭시 처리하여 차량에 부착해도 탈색의 염려가 없습니다.
 3. 반영구적입니다.
 4. 차량용(유리후면부착)으로 좋습니다
- 보급방법** 사찰, 단체에 보급합니다.
- 크 기** 3.5cm x 10.5cm, 6cm x 7.5cm
- 보 급 가** 1개당 1,000원

※ 300개 이상 제작시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